

전북 장애인 친화정책 '전국 모델'로 우뚝

**‘일자리·자립·돌봄’ 3박자 선도
 공공일자리 2,086명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전국 1위
 중증생산물 구매율도 최고 성과**

전북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 고용, 돌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 기반을 마련, 장애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업무는 과거, 관련 단체의 농성·집회가 빈번하고 복잡한 민원 수시 발생해 조직 내 대표적인 기피 업무였다.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현장행정을 통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전용 상담실 운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수어공인 등 실질적인 소통행정으로 갈등은 크게 줄고 신뢰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 3월, 도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개소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실 내 장애인단체 기증 예술 작품과 중증장애인생산물 전시를 통해 복지·문화·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일을 통한 자립 실현’을 위해 2025년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년도보다 19억 증액한 278억원으로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인 2천86명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율은

2.11%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성과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선구매특별법’상의 의무 구매율을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8억원 을 투입해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계획 수립, 주거 연계, 보조기기 및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까지 60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

립에 성공했으며, 이는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이달부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신규로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소통행정 기반 조성’은 전북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 본선 진출하여 경합할 예정

이며, 소통 중심의 장애인 정책 추진 사례로 높은 평가를 인정받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은 “장애자들과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실질적 정책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장애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음악에 ‘날개’ ‘소리프론티어’ 4개 팀 선정

**소속, 시나비, 공상, 조선아4팀
 소리NEXT 쇼케이스 무대 올려
 1개팀 추가 선발 해외 시연 추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영준)는 지난 12일 ‘2025 소리프론티어’ 2차 실연 심사를 통해 4개 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의 전통 장르 대표 축제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국내 유일의 전통음악 유통 플랫폼 ‘소리NEXT’를 시작한다. 이와 연계해 ‘소리프론티어’는 단순한 창작자 발굴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음악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1차에서 8개 팀을 선정,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우리음악 집단 소속, 시나비(SINAVI),공상, 조선아 총 4개 팀을 선정했다.

심사는 성장 가능성, 시장 친화성, 예술성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천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은 “오랜 음악과 악기를 통해 새로운 자

신을 만나 그 소리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며 “결국 4팀을 선정했으나 예술성을 판단하기보다 올해 처음 열리는마켓인 ‘소리NEXT’라는 시장의 경합성을 고민하여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도 내에서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 축제 기간인 8월 13일과 14일 중 ‘소리NEXT’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이들에게는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과 국내외 진출 연계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전문가 및 관객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올해 하반기에 해외 쇼케이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선정된 팀들 모두가 소리축제의 ‘소리NEXT’를 통해 국내외 전통음악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은지 기자

‘1994 만차행진’ 전주시 운영 ‘1994’ 특별노선 버스가 전북현대FC의 홈경기마다 팬들이 줄지어 탑승하며 만차 행진을 기록해 열기를 더했다. (관련기사 3면) <사진=전주시>

조이(주), 고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첫 운영자로

**관리위탁운영 제안서 평가위서
 완주 ‘아마존아쿠아’ 운영사 낙점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 개장**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군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이하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첫 번째 운영자가 선정되

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최근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주식회사 조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15일 이내에 운영 조건 및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조이’는 현재 완주군과 충남 당진시에서 복합 워터파크인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대형 워터레저시설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바나 및 오션뷰 포토존 조성, 한방 아로마 테라피관, 어린이 해양탐험존, VR 해양 어드벤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양레저체험 복합 단지는 단순한 레저 공간을 넘어, 군산이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라고 밝혔다.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201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SOC 사업에 반영된 이후, 2023년 9월 무녀도 일원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386억 9천 만 원이 투입되며, 약 6만 4천㎡ 부지에 해양레저체험 시설과 산림휴양,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군산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시설은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이크, 산림휴양 시설 등이며, 특히 서핑연습

장, 최대 수심 5m의 잠수풀장, 최대 3m 파도를 구현하는 인공파도풀, 친환경 카약·카누 체험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복합단지는 이르면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시설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섬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2025 정음물빛축제

더 COOL 더 익사이팅 정음

8. 8.(수) ~ 8. 10.(금) | 정음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

개막식 8. 8.(수) 19:00



형준 페스타



댄스 페스티벌



릴보이



우디고차일드



노브레린



EDM 파티



한여름 물난리

정음시

전북자치도, 'SOS 돌봄센터' 돌봄 공백 해소

익산 '딩동댕어린이집' 시범 운영 야간공휴일 등 서비스제공 보호자 만족

전북자치도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SOS 돌봄센터'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보호자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익산시 소재 딩동

댕어린이집(인북로66길 31)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관은 접근성과 안전성, 돌봄 인프라 측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지난 4월 운영기관으로 확정됐다.

돌봄센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보호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유선예약 후 신청서와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천 원으로, 월 60

시간 내에서 도와 시가 3천 원을 지원해 부모는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급식과 간식, 개인 용품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 센터 개소 이후, 총 14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센터는 보호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혼자 아이를 양육 중인 한 보호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았다'며 'SOS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마음 편히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이용 기회가 생기면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

다.

전북도는 이번 SOS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첫발을 내딛는 전북형 SOS 돌봄센터가 고된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길 기대한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소방, 여름철 차량·전기기기 화재 ↑

계절·환경 변화 화재 집중 사전 예방 중요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최근 10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적 요인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시기와 유형에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2만722건이며, 이 중 여름철에만 2,841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13.7%를 차지했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서 △전기·기계 설비 과부하 △차량 온도 상승 △불꽃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차량 관련 화재는 총 2천803건으로 전체 화재의 13.5%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름철에만 487건이 발생해 전체 차량 화재의 17.4%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치로,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7월 18.1%, 8월 16.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1,049건(37.4%), 전기적 요인이 686건(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에는 엔진·냉방장치·배선 계통의 과열이나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름철에는 차량을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해 주차하고, 운행 전 냉각수·배터리·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차량 점검이 중요하다.

전기기기 관련 화재도 여름철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기기로 인한 전체 화재는 총 1천72건이며, 이 중 195건(19.4%)이 여름철에 집중됐다.

여름철(7~8월) 전기기기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이 83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50건, 26%), 기계적 요인(39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전기제품, 자동차, 불꽃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예방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형 국제교류, 교육·의료 두마리 토끼 잡아

몽골 고교생 179명 연수 외국인 환자 329명 유치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2025년 상반기 동안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에 총 616명의 해외 방문객을 유치해 약 47억원의 소비유발 효과를 창출하며, 단발성이 아닌 실행 중심의 국제교류 정책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몽골 고등학생 179명 유치에 성공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전체 성과의 29%를 차지, 전략형 교류사업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고등학생 교육연수는 재단이 2023년 몽골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된 후속사업으로, 2025년 총 4차례에 걸쳐 전북을 찾은 179명의 몽골 고등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언어 연수와 문화 체험을 병행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입국한 95명의 4차 입국단은 상반기 마무리를 장식하며 교육 연수 성과에 정

점을 찍었다.

연수생들은 전주비전대와 전북대에서 한국어·영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며 비빔밥 만들기, 한복 입기, 전통놀이, 한옥마을 체험 등 전북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며 지역과의 유대감을 깊게 쌓았다. 이번 연수는 단순 체험이나 관광을 넘어, 국제 청소년 교류를 통한 미래 소비자 기반 형성과 전북의 인지도 제고, 유학, 재방문, 가족 관광으로의 연결 가능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제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 연수 사업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숙박, 식음, 체험, 교통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소비가 고르게 발생하며,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 연쇄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북은 외국인 환자 4천792명을 유치하며,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과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한 전북



형 모델로 전국 평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대자인병원(166명), 원광대병원(150명), 소피아여성의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들이 몽골 시장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나섰고 총 329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른 소비유발 효과는 약 43억에 달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체류형

소비 유도 및 의료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재단은 이번 몽골 연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의 대상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 의료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도내 대학, 연수기관, 민간에 이천시 등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듬어갈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16일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8월 8일까지 유해약물 판매 출입 제한 위반 등 점검

전북자치도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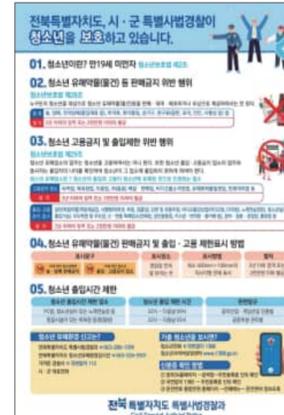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 행위, 출입·고용 금지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각종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의 표시 미설치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및 표시 미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혜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실무 중심 다매체 매뉴얼 제작

실무 중심·실제 사례 중점 영상 매뉴얼 등 활용성 강화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5일 전북도청 17층 작전실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매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업무 편의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다매체 매뉴얼(책자, QR 코드, 동영상) 제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안 개발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참고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철희 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이번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서를 넘어 화재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완성도 높은 자료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조사 실무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다매체 매뉴얼 초

안 개발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참고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철희 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이번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서를 넘어 화재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완성도 높은 자료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조사 실무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다매체 매뉴얼 초

도·포토라이프 원, 사진 활용 지역 생태관광 공동 홍보 협약

전북자치도는 15일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사진동호회 '포토라이프 원'과 함께 생태관광 및 천리길 관련 사진 콘텐츠 공동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사진작가들의 재능 기부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북 생태관광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천리길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 한순운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전북의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더욱 건강한 여름을 위한 냉방병 예방법

2시간마다 10분이상 환기 하기

실내온도26~28도 유지 하기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청소하기

찬바람이 피부에 닿지않게 미리 준비하기

전북현대 무패가도 속 1994 특별노선 '만차행진'

**관람 편의 위해 운영
총 8809명 이용 교통혼잡
주차난 해소 도움**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가 무패가도를 달리며 K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홈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도 만차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의 상반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주말 홈경기 일정에 맞춰 총 10회 운행된 특별노선에는 총 8809명의 시민이 탑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누적 홈경기 관람객인 약 18만 3000명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정규시즌 역대 최대 관중(3만 1830명)을 기록한 지난 5월 31일 경기에서는 특별노선을 이용한 시민이 1682명에 달해 노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 중

점을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를 거쳐 월드컵경기장까지 경기 2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집중 운행된다.

시는 경기 입장권 예매 실적과 경기 당일 기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차량을 유동적으로 배치하고, 질서유지 인력과 교통 정리 지원도 함께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또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부터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전주시 교통흐름의 핵심 거점을 연결하며 운행돼 경기 관람객뿐만 아니라 도심을 통과하는 일반 교통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상반기 8800여 명이 해당 노선을 이용함으로써 같은 인원이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시내 중심가의 교통 정체와 경기장 인근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된 대중교통 서비스가 경기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공동체의 응원 열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면서 단순한 교통편 제공을 넘어 시민이



전북현대모터스FC가 K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홈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운영한 1994 특별노선도 만차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주시>

함께 만들어가는 '응원 문화'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확인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북현대 홈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지속 운영하고, 현장의 시민 의견과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1994

특별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응원길이 되고 있다"며 "지난 상반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 편리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1994 특별노선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응원 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난 해소 기여

**시민 참여 공유주차
문화 지원·개발 확대**

전주시는 민간 참여로 추진 중인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조성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 4억1000만 원이 투입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신청 접수가 조기 완료됐다.

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23개소 1048면 주차장 개방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 시는 확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통해 지난 상반기 중 단독주택 8개소의 17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더불어 시는 하반기에도 신청을 접수 받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등록된 차량은 총 34만 2248대로,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면수와 연장 횡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개방주차장에는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함께 유·무료 개방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줄여 안전한 골목길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민선 7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지원 투입이 필요한 공유주차장 조성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문화 확산과 주차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사랑콜, 1만 이용자에 여름맞이 '통 큰 혜택'

**신청~지급 행정 대응 최선
TF팀 가동 지역상권 활력 기대**

전주시는 새단장을 마친 전주형 택시 호출앱 '전주사랑콜'이 여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사랑콜은 지난달 리뉴얼 오픈 이후, 1만여 명의 시민이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사랑콜 운영에서는 2200여 명의 기사들이 시민들 이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주사랑콜은 리뉴얼을 기념해 여름한시 이벤트로 오는 21일부터 8월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와 함께 같은 기간 전주사랑콜 자동결제 이용자 중 상위 300명의 디어용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친구 추천 이벤트는 신규 이용자가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 시 추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1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지급된 쿠폰은 1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디어용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12개월 이내에 쿠폰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또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4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자동결제 택시 이용자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택시요금 결제 시 쿠폰(1000원~4000원)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도 추진된다.

여기에 시는 폭염 속에서 택시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전주역 택시 이용객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매일 300개씩 얼음물을 제공하며 전주사랑콜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여름철 전주 대표축제인 전주가맥축제 등 다양한 축제 현장에서 홍보보스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전주사랑콜 앱은 배차된 차량

의 도착시간을 안내하고,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목적지로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택시 이용을 불안해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기존 안심메시지로 차량 정보만 안내하던 것과 달리, 리뉴얼 이후에는 차량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와 이동 상황을 전달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재 없는 빠른 택시 배차를 위해 기존에는 먼저 수락한 기사에게 배차하였던 방식과 달리, 팔을 수락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에 배차함으로써 승객이 더욱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는 앞으로도 리뉴얼 앱 개시 후 요구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목적지 미지정 택시 호출 기능(후불 결제)을 새로운 앱에서도 구현할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숨 막히는 무더위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전주사랑콜 앱으로 택시 애용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여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사랑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

**영유아~65세 이상 어르신 등
시기별 24종 국가접종 지원**

전북자치도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으로 시기별 2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여름방학을 활용, 학생 필수예방접종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적절한 시기의 예방접종은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교생활 중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등교중지, 의료비 부담 등으로 학습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도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초등학교(6세, 2018년생) 및 중학생(12세,

2012년생)을 대상으로 학령기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접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2025년 입학한 초·중학생의 현재 접종 완료현황은 초등학교 92.2%, 중학교 79.5%로 나타났다.

도는 교육청과 협력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초·중학교 입학생 정보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학기 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보호자께서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자녀의 접종 여부를 확인해 달라"면서 "도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접종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34개 동장들과 주요 현안 공유

**각 동별 주요 현안
건의사항 청취**

우범기 시장은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34개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시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동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동장 회의를 가졌다.

앞서 우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회의는 비록 시민과의 대화는 연

기됐지만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취지로 시민 최전방에 있는 동장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선8기 4년 차 전주시의 주요 현안인 △완산·전주 통합 추진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 공유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만큼,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동장들께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허투루 들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취사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계곡명산 중심 점검**

전북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생물·건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임목 훼손 등

산림 환경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과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이울러,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시·군 산림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

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탐방객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푸른 숲을 함께 지키는 성숙한 산림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발생 현황 <2025. 7. 14(월) 기준>

| 구분 | 금년도(25년) | | | | 전년도(24년) | | | |
|----|----------|------|------|----|----------|-----|------|----|
| | 발생자수 | | 사망자수 | | 발생자수 | | 사망자수 | |
| | 금일 | 누계 | 금일 | 누계 | 금일 | 누계 | 금일 | 누계 |
| 전국 | 13 | 1582 | 0 | 9 | 14 | 558 | 0 | 3 |
| 전북 | 0 | 93 | 0 | 1 | 0 | 27 | 0 | 0 |

* 감정적 수치로 변동될 수 있음

□ 우리도 발생 현황

○ 질환별

| 계 | 열사병 | 열탈진 | 열경련 | 열실신 | 열부종 | 기타 |
|----|-----|-----|-----|-----|-----|----|
| 93 | 17 | 46 | 19 | 10 | - | 1 |

○ 시군별

| 구분 | 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기타 |
|----|----|----|----|----|----|----|----|----|----|----|----|----|----|----|----|----|
| 발생 | 93 | 17 | 8 | 12 | 11 | 7 | 4 | 10 | 7 | 0 | 3 | 5 | 5 | 0 | 4 | 0 |
| 남자 | 82 | 16 | 8 | 8 | 11 | 5 | 3 | 8 | 6 | - | 3 | 5 | 5 | - | 4 | - |
| 여자 | 11 | 1 | - | 4 | - | 2 | 1 | 2 | 1 | - | - | - | - | - | - | - |
| 사망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 남자 | 1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여자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령별

| 구분 | 계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79 | 80+ | 65+ |
|----|----|-----|-------|-------|-------|-------|-------|-------|-------|-----|-----|
| 계 | 93 | 0 | 3 | 7 | 4 | 13 | 14 | 18 | 16 | 18 | 41 |
| 남자 | 82 | - | 3 | 6 | 4 | 13 | 11 | 15 | 16 | 14 | 35 |
| 여자 | 11 | - | - | 1 | - | - | 3 | 3 | - | 4 | 6 |

전북농협,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여업체 모집

쌀·우리쌀 7부문 우수작 선정 총 상금 2억6천...대상 2천만원 8월 1일까지 참가 접수 마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우리쌀의 우수성과 쌀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 우리쌀·우리쌀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에 참여할 전북 도내 업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쌀가공식품·우리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행사로 올해는 더욱 확대된 규모와 체계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품평회 출품작 접수는 오는 8월 1일 까지 K-라이스페스타 공식 홈페이지(k-ricefesta.co.kr)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쌀 가공식품 부문이 △조리식품(일반업체) △비조리식품(일반업체) △농협 시판식품 등 3개 부문으로, 우리쌀 부문이 △저도 발효주(9도 미만) △고도 발효주(9도 이상) △약·청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시상 규모도 전년 대비 12점이 늘어나

총 28점으로 확대됐다.

각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되며, 특히 대상 수상작에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전체 시상금은 2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정환 본부장은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는 전북 쌀 가공식품 및 우리쌀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

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쌀 가공식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특히 전주농협의 현미누룽지, 익산농협의 찹쌀떡, 공덕농협의 떡국떡, 동진제농협 쌀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쌀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농진청 '국산 식량작물 한눈에' 전시포 견학 운영

벼 84품종, 밭작물 80품종 신기술 체험맞춤 상담도 진행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신종 품종 작물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품종 비교 전시포'(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를 조성해 해마다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벼 84품종, 밭작물 80품종을 전시한다.

벼 전시포에는 신종품 9종(특수미 3, 밥쌀용 6)을 비롯해 시대별 품종 22종, 가공용 20종, 밥쌀용 42종 등 모두 84품종이 전시돼 있다. 모내기(이앙), 벼피 바로 뿌리기(무논점포), 비료 적게 주기 등 6가지 재배 유형으로 조성, 다양한 벼 생육 방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밭작물 전시포에는 두류(콩, 팥, 녹두), 잡곡(조, 수수, 기장), 서류(고구마, 감

자),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옥수수 등 12개 작목 80품종이 전시돼 있다.

올해부터는 '무인예약 해충방제 트랩', '굴삭기 부착형 무급작 땅속 배수', '스마트한 논물관리 자동물차' 등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기술 효과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견학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nics.go.kr) 또는 대표전화(063-238-5000)로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시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운영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커 견학 시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시포 내 그늘 쉼터를 마련, 안전한 관람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시포를 찾은 주요 방문객은 작목반·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가 많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전시포 견학 만족



농진청농정 지난해 전시포 밭작물 품종 견학. <사진=농진청>

도가 95.8%로 매우 높았다.

농업 전문가가 직접 전시포를 안내하고 방문객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식량작물 품종 선택부터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 다양한 농사 문제를 맞춤형으로 상담한 점이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

다.

농진청농정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황태상 과장은 "식량작물 신종품과 최신 농업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시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 수도 데이터로 연금 수급자 돌봄 강화

사용량 분석 이상 징후 포착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 데이터(Data)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과 수급자 돌봄지원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그동안 수급자의 자진신고, 병원 진료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수급권 변동 확인 수단으로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은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하여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급권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수급자를 발굴해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공단은 수도 사용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데이터(Data) 기반 복지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국민연금공단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과 수급자 돌봄지원 강화에 나섰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건설단련,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 열어

지역 상생 위한 협력 다짐 김경안 청장에 감사패 전달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5일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를 실시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민간 투자유치 성과를 통해 전북경제와 지역건설산업에 크게 기여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김경안 청장께서 그간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잠재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

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에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완주 상관 경로당에 냉장고 전달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가 15일 상관면 상신광경로당을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호 지부장과 상신광경로당 어르신 10여 명이 함께해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지원은 기존 경로당 냉장고가 고장 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김대호 지부장이,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신선한 음식과 음료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대호 상관면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항상 먼저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더운 여름 물품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김명근기자

전북조달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나서

김항수 청장, 새만금산단 방류관로 공사 현장 방문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도내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1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아이비건설 외 2개사의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새만금산단 공동 방류관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철저히 관

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둘러본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올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는 물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관내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공 시설물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202호' 오픈

효자동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책상 교체·개보수·냉장고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개소한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 노후화로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그동안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컸던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교체했다.

또 균열과 타일 깨짐, 세면기 고장 등

으로 안전과 청결에 취약했던 화장실을 개보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급식지원을 위한 냉장고도 지원했다.

오픈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명선 센터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학습을 위한 책상과 의자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어려움을 해결해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1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활성화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논의

축산농가 지역농업 상생 모색 우분연료화사업 우수사례 공유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활성화 회의를 실시했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를 활용해 경종농가에 공급 및 살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업이 상생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치 지원사업, 경축순환 우수모델 발굴 등 현장에 실질적 지원실명과 우분연료화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경축순환을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며 "전북농협은 경축순환 모델 확대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직업계고 현장 실습 기간 확대 두고 '갈등'

전교조 "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청 "전국 공통 유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 교육 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참교육학부모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은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실습 기간을 최대 4주로 제한했던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기존 합의가 무시된 채 학생들을 안전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내모는 지침 개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참교육학부모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교조 전북지부>

이들 단체는 "직업계고 실습생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실습은 경력 인정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취업

후보,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실습은 전북교육청이 선정한 선도기업에 한정해 운영되며, 노무사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다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12주로 확대되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4주의 현장실습 기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직업계고의 목표가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이냐. 실습 경험은 앞으로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

11개교 인증패 수여식 안전·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하고,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책임규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봉서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때'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약속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규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뿐만 아니라 회복적 생활 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약속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 그 자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후배 사랑'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원생 장학금 신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전국 동문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든든한 아낌없는 지원을 사업에서부터 유학생, 자립준비 청년, 미래 연구 동량인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총합한 지원이 자발적 동문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도 이어진 대표 사업은 6·25전쟁 참전·지원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이다.

총동창회는 지난 6월 24일 전주 시내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캐나다·에티오피아 출신 유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20명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총동창회는 참전용



사 후손에게 졸업할 때까지 매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고려인 후손 장학금'도 올해부터 신설해 러시아 출신 유학생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와 연대하는 작은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문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외에도 총동창회는 '자립준비청년'(보육시설 퇴소 청년)들에게도 8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치·약·수의대 학생들에게는 12학기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모든 전북대 총동창회 장학재단과 뜻있는 여러 동문들의 후원, 그리고 소액이지만 꾸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CMS 정기후원 등 순수 동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장학금과 아낌없는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전북대 동문의 힘"이라며 "한 지붕 아래 학창시절을 함께 한 공통의 뿌리 덕분에 총동창회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 선배들의 뜻인 만큼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수소에너지지교 1학년 대상 '꿈 키움 기업탐방' 진행

LS엠트론 산업 현장 체험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15일 수소에너지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LS엠트론에서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LS엠트론의 사업 분야 및 제품 소개 △생산 및 연구 현장 라인

투어 △직무 환경 체험 △취업 특강 및 직무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LS엠트론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인재상과 채용 절차, 주요 직무에 대한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했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이다"라며 "우석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새만금청, 제2회 'ASK 2050 새만금 포럼'

오는 21일 국립군산대서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제2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오는 21일 국립군산대 제1학생회관 고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일본 지방대학의 혁신',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의 '탄소중립을 향한 새만금의 길: 재생에너지와 오션모빌리티의 미래', △천용희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의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선기운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새만금공사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순서로 진행되며,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 홈페이지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새만금 포럼은 '새만금과 국립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국립군산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1학교 1인성브랜드' 우수학교 12개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학교 1인성브랜드' 실천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학교 12개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은 전북 인성교육 3대 핵심덕목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들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구성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선정된 학교는 △전주대정초등학교 △전주전일초등학교 △전주중앙중학교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군산서흥중학교 △익산부전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한울학교 △동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안중학교 등이다.

특히 전주근영여고는 학년·학급 테마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 활동을 학교 상황에 적합하게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원광여중은 자체 제작한 나의 바른 성장노트(귀공주)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우수학교 12개교에는 인성교육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하반기 도내 모든 학교에 실천 사례를 보급해 인성교육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장마철) 여름철 주의사항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착용, 준비운동하기
불어난 강물과 같은 계곡
들어 가지 않기

식중독 전염병

비누로 손 깨끗이 씻기
끓여 먹고, 익히기, 오래된 음식
먹지 않기

폭우 폭염

외출 자제하기, 배수구 점검
고지대로 차량 이동하기
빗길운전 조심하기

감전사고

젖은 손으로 전열기구
만지지 않기, 전봇대와 신호등
근처 가지 않기



익산시, 영유아 위한 여름밤 실내 놀이터 운영

익산시가 무더운 여름밤,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실내 야간 놀이 공간을 연다.

익산시는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실내 프로그램 '별빛달빛 야간개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야간개장은 지난해 큰 인기에 힘입어 확대 편성됐으며, 오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총 5회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회당 영유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호자 1인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http://naver.me/5HkaRTLZ>)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000원이며, 보호자 1인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준비 돌입 음식·특산물 품평회

정읍시가 제18회 구절초 꽃축제를 앞두고 지역 대표 먹거리와 특산물을 선별하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며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산내면종합체육센터에서 구절초 꽃축제 판매장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음식·푸드트럭·특산물 판매장 등 3개 부문에 걸쳐 품평회를 열었다.

이번 품평회에는 지역 내 마을, 단체, 업체 등 총 82개소가 참여해 지역의 맛과 개성이 담긴 음식과 특산물을 전시하고, 각자의 경쟁력을 겨뤘다. 참여자들은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하며 축제 참여 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심사 결과 식당 부문 9개소, 푸드트럭 부문 8개소, 구절초상품 판매장 38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날 중 선정된 업체들과 함께 가격 책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8월에는 서비스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유재산 매각 대부 집중 홍보 본격 추진

군산시는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에게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집중 홍보 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 136필지(약 24,148㎡)를 대상으로, 일반시민 및 인접 토지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건에 대해서는 8-9월 중 내부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10~12월 중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홍보는 △군산시 누리집 공유재산 공개 사이트 △팝업창 △유명동 회의자료 배포 △인접 토지주 대상 우편 발송 및 현장 안내 팻말 설치 △지역 언론 및 군산시보 게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 21일 신청 시작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달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총 228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

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읍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정읍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수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

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불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K-비전 전략 TF' 통해 미래 구상 나선다

국소별 전략 의제 공유토론

군산시는 15일 부시장 주재로 「군산 K-비전 전략 TF」 오픈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소별 발굴 주요 의제(아젠다)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K-비전 전략 TF'의 중간 점검과 함께 기술주도형 성장과 지방분권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장을 비롯한 9개 국소의 국·소장과 전 팀원이 참석했으며, 기획행정국을 시작으로 안전건설국, 경

제산업국 등 9개 국소별 릴레이 보고 후 자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8개 팀이 발표한 주요 검토 의제(아젠다)는 △AI·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저출생 및 청년 정책 대응 △지역관광자원 고도화 △복지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를 연계해 다양하게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발표된 의제가 군산시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팀별로 발굴한 의제(아젠다)가 단

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중앙정책과 예산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력과 지역 파급력을 갖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 협의와 국정과제 반영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팀별로 과제를 계속 보완·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군산시는 향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발굴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8월 중순까지 TF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국 여행자원 1위는 재래시장...정읍시, 전국 12위

기초지방자치단체중 도내 유일 상위 20위권 진입 성과

정읍시가 '여행자·현지인 추천 여행자원' 1위로 선정된 재래시장 분야에서 전국 12위를 기록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4만 8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에 따르면, 58개 여행자원 중 '재래시장'이 추천율 39.1%로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정읍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2위에 올라, 재래시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번 결과는 정읍시가 2019년 대비 87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린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 중 하나다. 이는 지역 내 전통시장 전반의 체계적



인 육성과 더불어 대표 시장인 샘고을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읍시의 재래시장 추천율은 60.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지역민의 추천율이 여행자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정읍의 실질적인 매력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

미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자원이 된 재래시장에서 정읍이 12위에 오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도시 핵심 자원으로 육성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정읍형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주민 손으로 만드는 금마고도 도시재생

주민 8개 팀, 지역 자원 활용

익산시는 오는 11월까지 금마고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참여하는 '2025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생활공간 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1일 익산시와 공모에 선정된 8개 팀은 '2025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협약에 참여한 팀은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환경개선분과 △금마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익산보석드림 △그림책상호 △금마아트홀 △주민협의체 상권활성화분과 △서동선화놀이공작단 △숨결결광 등 총 8개다.

이들은 전통 다기 제작과 참마 디지털 체험, 플라워 포토존 설치, 감성 인

문학 강좌, 마을 벽화 그리기, 꽃차·꽃청 상품 및 패키지 개발, 플라마켓과 야시장 운영, 역사·생태 여행과 문화예술 콘서트 등 금마고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 여름방학 영어 프로그램

수준별 맞춤 독서 지도

명품 교육도시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에 흥미를 더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하반기 'AR(영어독서능력향상) 정기회원과 '여름방학 영어문화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AR(영어독서능력향상)은 미국 르네상스사에서 개발한 독서퀴즈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독서 수준과 관심사에 맞는 지속적인 영어책 읽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회원으로 등록하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본인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AR 프로그램과 함께 7,000권 이상의 전자책을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마이온(myON)' 정기회원으로 함께 모집한다.

AR 프로그램은 영어 독해가 가능한 지역 초등학생 70명과 중학생 10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마이온은 초등학생 40명을 모

집한다.

정기회원 모집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두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여름방학 영어문화학교'도 진행된다. 영어문화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몰입형 영어 수업 6개 강좌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진다. 수강 전 도서관을 방문해 SR 테스트를 받고, 자신의 레벨에 맞는 반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3-7세 유아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초등 과정과 마찬가지로 오는 23일에 함께 모집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나, 강좌에 따라 교재비나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lib.iksan.go.kr/eng_lib)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댄 공사 중지 검토"

"근로자 안전이 먼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4일 영상 간담회에서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공공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기간 조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각 부서에 현장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그늘막과 워터, 냉각 의류 등 보냉장구를 비치하고 있

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에는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을 시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 운영 측면에서도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으로 불가피하게 시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가 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손진영, 조규대 위원(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최종오, 한동연 위원(보건복지위원회), 김미선, 정영미 위원(산업건설위원회)으로 구성

됐다. 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한동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미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상반기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면서 "이는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한 과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에, 의원들은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5일 제 3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단풍의 도시, 정읍다운 정읍을 위하여'를 통해 적극적인 단풍나무 식재를 통한 테마 거리 및 산책로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정읍의 정체성을 높일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단풍의 도시, 정읍다운 정읍을 위하여'를 통해 적극적인 단풍나무 식재를 통한 테마 거리 및 산책로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정읍의 정체성을 높일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6일부터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으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본격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간 접근성 향상 기대 28년 상반기 개통 목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 착수로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북연구원의 중재로 김제시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1월 하이패스 IC 설치를 처음 제안하고, '24년에 김제시와 완주군이 공공건립을 작성해 한국도로공사에 전달, 사업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25년 4월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반영됐다.

이번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02억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며, 시와 완주군은 보상협약과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각각 맡아 공동으로 이행하고 '2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 착수로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특히, 이사업은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에 따른 동부권 신성장점 구상과 연계해 하이패스 IC와 연결되는 2차선 군도의 4차선 지방도 승격을 병행 추진해 상습 교통 혼잡과 정체를 해소하고, 김제-완주-전주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간 접근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하이패스 IC 설치에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김제시 동부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파크골프장 조성 현장 점검

죽산면 현장 직접 점검 10억 투입 스포츠 복지 확대

정성주 김제시장이 15일, 죽산면 파크골프장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관련 부서와 논의했다.

죽산면 파크골프장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17,000㎡의 부지에 9홀 규모로 조성되며,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골프장 진입도로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진입도로 확·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부서별 협업 과제를 공유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골프장 진출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추가 확보, 도로 확장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화장실 내부 신축 등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추진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부 신축 등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 민원인의 외부 화장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창고를 청소한 뒤 내부 화장실로 신축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해당 창고는 짐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으나,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해 공간을 확보했다. 이번 화장실 신축은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등과 함께 추진돼 생활 편의와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1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 물량을 배정받았다. 고창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진심 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형 특화사업' 경제 기반 구축 본격화

관광푸드수소유기적연계 지속가능기반구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5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5개 부서 국·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군청 주요 현안과 주요 투자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의 원인과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민선8기 4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총 106건의 주요 업무를 부서별 세 그룹으로 나눠 대안공약과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 지역부진 투자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했다.

특히 군은 MW급 수전해 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양중산산업 클러스터, 국가 해양치유 블루카본 정원



조성 등 해양·관광 기반 확충 사업을 비롯해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부안 해플웬니스타운 조성사업,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 산업 특구 등 부안형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부안 세바퀴 경제'의 관광·푸드·플랜·수소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요 현안과 투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욱 실행력 있게 군청을 추진해 달라"며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발굴

25일까지 공모작 접수

부안군은 지역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현을 위해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어르신, 청년, 어린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부안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주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특화형 기금사업으로 구체화



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유치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참여 플랫폼"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의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제363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5일 제36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하반기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정책이 실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전세 대출이자 2억3천50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부담 경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20일 까지 약 2주간 신청을 받았으며 109세대가 대상자로 선정돼 총 2억3천500만원의 사업비를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2억원을 증액 후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상반기 지원금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에 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격요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은 11월 공고 후 12월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비 지급이 있을 예정이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치솟는 전세값과 대출이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최근 신규 아파트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으로 대상자 모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운행

버스터미널이전주민불편해소

고창군이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창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전통시장 장날(매월 3일, 8일, 13일, 18일)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25인승 미니버스가 투입된다. 모든 이용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고창인시터미널을 출발

해 △(구)고창문화터미널 △고창군청 △고창읍성 앞 정류장 △고창전통시장 동문주차장 등을 경유한 후, 다시 고창인시터미널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 여름철 시장 방문이 불편해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년·고용안정일자리센터 통합이전개소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 지역의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제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년종합지원센터와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김제보건소 지하 1층에 첫 문을 열었다.

새로 이전한 곳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3층에 연면적 약 328㎡ 규모로 조성됐으며, 고용 서비스를 기능별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됐다.

그간 일자리 센터는 구인·구직 발굴 604건, 취업연계 316건, 근로자 상담 지원 1,369건, 일자리 매칭데이 등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지게차 자격증 과정,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 등 시민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파트너십,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고용 거버넌스 기반을 하나하나 쌓아 오는 등 착실하게 성장해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불안정한 고용시장의 상황속에서 누구나 일하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하반기 21가지 프로그램 개강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총 21가지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문화생활 활성화와 자기계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좌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이 신설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교육, 어학, 취미, 교양,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각 강좌는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돼 참가자 개개인을 맞춘 집중적인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옹기종기 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유네스코세계유산 7개 보물특화 고창군, 수학여행유치활성화

고창군은 지난 14일 관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담당 교사들을 초청해 '고창군 수학(교육)여행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창군의 풍부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교육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인솔하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과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고인돌 유적지, 판소리, 동학, 세계지질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7가지 보물특화 프로그램 투어를 고창읍성, 은곡람사스습지, 상하늬늪, 갯벌체험장 등을 연계한 생태·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교사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보물을 품은 역사 문화도시이자, 정당한 자연과 풍요로운 농촌, 깊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서 교육 여행지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며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교육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 구역 신규 지정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주읍과 설천면 지역의 택시 승차대 6곳을 새로운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림터 △구전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악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역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로원 보건행정과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 설천면, 민관 협력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무주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종화)와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의 주택 청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활동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무주지역자활센터 소속 인력 등도 참여해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청소를 진행한 가정은 무주군 설천면 이남마을에 위치한 곳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 쓰레기와 폐가전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전상호 무주군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주택 청소 결정이 나고 많은 분의 관심과 동참 속에서 집 안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며 "향후 해당 가구 어르신에 대해 진단과 장기 요양 등 급 신청 등 추가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일자리 활성화 유관기관 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15일 '씨없는 곳갈 마을' 휴양관에서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고용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용),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박미희),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철)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진안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줄여 취업률과 정주 인구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운영 △일자리 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이주민 지역정착 프로그램 연계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로 유기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정제된 지역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직원 채용과 구직자의 직장 정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옥정호, 9월 1일까지 휴장

옥정호·봉어섬 21일부터 광장 조성 휴장 결정 9월 2일 재개장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40여 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군은 봉어섬 다목적 광장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장을 결정했다.

임시 휴장 기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 작업을 병행해 오는 9월 2일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군은 휴장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및 SNS 홍보와 함께 관내 인근 지역 플래카드 게시, 전국 지자체 협조 공문 발송 등 다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40여 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사진=임실군>

각적인 방안으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은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야 한다"며 "이번 임시 휴장은 이용객의 안전과 더 나은 시설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일본 히가시카와정, 우호교류 재개

2020년 중단이후 6년 만 국제교류 복원·확장

장수군이 우호도시인 일본 히가시카와정(東川町)과의 공식 국제교류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해 우호 교류 재개의 뜻을 확인하고 양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군수 일행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부터 중단된 대면 교류를 6년 만에 재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최 군수는 "장수군과 히가시카와정은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이 매우 닮은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히가시카와정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쿠치 정장은 "장수군은 오랜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히가시카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 교류를 재개해 양 지역이 상생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히가시카와정의 정책 우수사례를 시찰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교류에 대한 실무 논의

를 진행했다.

최훈식 군수는 "히가시카와정의 주민 행복도를 올리는 정책 등 장수군에도 주목할만한 사례를 배울 수 있었으며 장수군의 스마트팜, 산악레저 등 변화된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해 작지만 강한 장수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총력

1차 지급 21일~9월 12일 사전 준비 철저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이 주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지급 기간은 7월 21일~9월 12일까지이다. 지급액은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반 주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

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본인 소유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신용·체크카드 본인 소유 카드사 방문 신청 등이다.

단, 첫 주민 7월 21일에서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적용된다.

이후 2차 지급은 9월 22일~10월 31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주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소비쿠폰 지급이 혼선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반을 구성해 인력관리, 지급결정단 등을 구성하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주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국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력

최정일 부군수,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방문

무주군이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들을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정일 부군수와 건설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국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

해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

전타당성조사의 신속 추진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신규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등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과 △대전~남해 철도 건설사업이 제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기반은 하계올림픽 유치 인프라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매우 중요한 교통망"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과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드론 활용 벼 무인공동방제 추진

병해충 피해 최소화 기대

무주군이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1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인 드론을 활용해 406ha(일반 394.7ha, 친환경 11.3ha) 규모에 단기간 공동방제를 펼친다.

올해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총 762명으로, 2,507필지에 해당한다.

단, 경영체 미등록 필지를 비롯해 벼 이외의 작물 재배 농가, 무인 공동방제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10m 이내 인삼밭·

과수원 및 100m 이내 양봉 농가 존재 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방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벼 생육기간 중 7~8월 2회에 걸쳐 위탁 항공 방제비와 약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라며 "출수기 전후 2회 방제를 통해 도열병과 이화명나방 등의 병해충을 막아 고품질 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최한주 장수군의회 "농촌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해야"

30억 초과매장사용 허용 등 제안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업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

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차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한주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진관 임실 부군수,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행정

이진관 임실 부군수가 최근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객의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물놀이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덕치면 강변사리 캠핑장 인근 하천, 섬안 일대 등 물놀이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물놀이 관리지역 2개소 및 물놀이 위험지역인 월파정, 천담과 장산 사이 테크 일원을 순회하면서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진관 부군수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물가를 찾는 행락객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은 지난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 4곳에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해 순찰과 계도 등 안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물가를 찾는 행락객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 공연 섭외 혼선 공식 해명

사태 수습·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장수군이 오는 9월 예정된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개막공연과 관련해 가수 섭외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15일 공식 해명하고 사태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개막식 축하공연은 JTV가 주관하는 JTV 특집 공개방송으로 기획했다.

운영대행사인 JTV는 에이전시를 통해 행사의 흥행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기 가수 소녀시대 태연의 섭외를 적극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섭외

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식배포하지 않고 제작 준비 중이던 사전 리플릿과 포스터 시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출연진 섭외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축제 공연 가수 섭외 과정 중 내부 시안이 외부로 유출돼 군민과 팬 여러분께 분의이니게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축제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국생활환경경석면협회 임직원, 부안군에 500만 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4일 (사)한국생활환경경석면협회 진득환 부회장 등 5명의 임직원이 각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한 협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부안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아 이뤄졌다.

진득환 부회장은 "지역 발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부안군이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아이빛유치원, 고사리 손으로 나눔의 기쁨 전해

익산시 신동은 '아이빛유치원(원장 성하숙)'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플라마켓 수익금 15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빛유치원은 유아 경제교육 '화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아들과 함께 플라마켓을 진행했다. 원아들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을 가져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신동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정읍·신태인 JC, 정읍시에 500만원 기탁

정읍의 청년들이 고향을 위한 마음을 기부금으로 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지난 14일, 한국청년회의소 전북지구(회장 김정환), 정읍청년회의소(회장 김동완), 신태인 청년회의소(회장 문진숙)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청년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청 조정팀, 전국대회서 연이은 '맹활약'

김승현, 여자부 싱글스켈 우승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2025년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잇달아 거두며 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먼저 김승현 선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조정협회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싱글스켈에 출전해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김 선수는 2,000m 수상 레이스 1위, 2,000m 에르고미터 레이스 2위를 기록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태극마크

/군산=지송길 기자



호원대학교 펜싱부, 전국대회서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

금1·은1·동3 활약

호원대학교 펜싱부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 6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최종 우승했다고 밝혔다.

여자 에페 단체전에 진출한 호원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한다현, 최예원, 김다은,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이유빈 선수가 최종 결승전에서 여자 에페 전국 최강팀을 입증했다.

또한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나성찬, 강태원, 이승민, 2학년 오신우 선수가 8강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플러레 단체전에서도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배재관, 스포츠무도학과 3학년 박순혁, 김시우, 1학년 정현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박성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플러레에서는 스포츠경호학과 4학년 배재관 선수가 마지막 동메달까지 거머쥐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감사패 수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살피고 실질적인 심리지원을 펼쳐온 공로로 '2025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에 선도적

으로 나서고 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일은 지역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탈북민은 물론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한국실업볼링연맹, 남원시에 물티슈 110박스 기부

남원시는 2025 전국 실업 볼링대회를 맞이하여 15일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 황유하)에서 물티슈 110상자(총 6,500개/환가액 일천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황유하 회장은 "실업 볼링의 저변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연맹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남원시에서 뜻깊은 대회를

개최하게 된 만큼,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된 물티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며,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소득 모아 희망 전해

익산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이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70만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에 참여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구윤근, 조선구, 정용순, 최경자, 이춘자, 이순례, 하영자, 남옥자, 김창용, 김정희 등 10명이다.

이들은 북부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합월 지역 내 활동 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매달 받는 활동비 29만 원의 일부를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LG베스트샵 김제점, 취약계층에 선풍기 100대 기탁

김제시는 LG베스트샵 김제점(대표 김민호)이 15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약 5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019년부터 7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LG베스트샵 김제점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담겨 있다.

기탁된 선풍기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정읍시 농소동, 제헌절 앞두고 전 마을에 태극기 보급

정읍시 농소동 주민자치회(회장 육석)는 제 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태극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마을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감동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육석 회장은 "전 가정에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여름철 에너지 절약 쿨~팁!

**냉방온도 1도 높이고
실내온도 26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사용**

**문 열고
냉방영양 자제**

〈一事一言〉



내란세력 지지한 종교인들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종교 가진 어떤 사람은 악의 세력에 협조하고, 종교 가진 또 다른 사람은 악의 세력에 저항한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종교를 가지는 목적과 의도가 처음부터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종교의 가르침을 억압할 수도 있겠다. 현실을 보는 눈에서 그들은 차이가 난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종교인과 그렇지 않은 종교인이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 종교인이 적지 않다. 역사와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무지와 편견이 깨어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 돈과 권력이라는 이해관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얻으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들이 아니다.

예수는 악마가 살기 좋은 집에 인간을 비유하기도 했다. 악마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악마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셈이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마와 함께 산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서 오는 고통을 하소연할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악의 세력은 순순히 물러가지도 않는다. 선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이기지만, 악의 세력을 선이 언제 이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악의 세력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적지 않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악의 세력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제 발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윤석열을 쫓아냈다. 악마를 쫓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의 빈틈을 노릴 것이다. 악의 세력은 다시 돌아오려고 노린다. 앞으로도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악의 세력은 위장과 속임수에 능하다. 넥타이를 하고, 고학력을 자랑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에 숨어 있으며, 친절할 모습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을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다. 악의 세력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게 방해하는 책, 언론, 정보, 조직들이 아주 많다. 누가 악의 세력에 속하는지 갈수록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부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즐겨 하지만, 악의 세력과 다름을 피하는 종교인이 많다. 억압받는 백성에게는 자비를 강조하면서,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외면하는 종교인이 많다. 불의의 보고 저항하지 않는 종교인은 악의 편이다.

예수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비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악한 종교인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둘째, 사악한 종교인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있다. 셋째, 사악한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 못하게 방해한다.

예수는 바르코니에서 세상을 멍하게 구경만 하지는 않았다. 골방을 박차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야전병원 같은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였다. 악한 통치자와 가짜 예언자들의 동맹을 묵순 걸고 비판했던 예언자들처럼, 예수는 악한 통치자와 가짜 예언자들의 위선을 꾸짖었다.

‘위선’이란 단어는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거짓 종교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위선’은 도덕이나 종교적 의미에서 흠결 있는 사람보다는 정보나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해관계에 얽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 수사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검사나 판사는 신약성서가 말하는 위선자에 해당한다.

예수를 믿는 종교인 엘살바도르의 로베로 대주교는 1980년 2월 17일 ‘백성들이 학살 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 받습니다’라고 설교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시대의 또다른 어떤 종교인들은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욕하고 있는가.

손헌보 목사는 지난 5월 11일 신도들을 상대로 한 교회 예배에서 “이재명은 히틀러에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은 악하기가 김일성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7월 1일 ‘전남 순천 자유마을 대화’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은혜고, 세 번째는 전광훈 목사의 은혜”라고 주장했다.

내란세력을 지지한 종교인들은

백성들과 함께 피 흘리는 커녕 백성들이 학살 당하도록 부추긴 사람들 아닌가. 성도들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사악한 종교인들에게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단 말인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해온 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그들의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종교인의 범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관계 기관과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백성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부르짖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민주 시민들은 희망으로 뭉치고 희망으로 외쳤다. 백성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올라 하늘을 움직인다. 그 하늘의 뜻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감옥에 보냈고 그 일당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들을 편든 종교인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하늘의 뜻은 아닐 것이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될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인재 전성시대, 실질적 성과로 답하라

이재명 정부 첫 개각을 통해 전북출신 인사들이 내각과 국회의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외교·안보·국방의 국가안보 3축을 책임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각각 조현, 정동영,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데 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전주갑)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이른바 ‘4장관 시대’가 열렸다.

여기에 이준석·한병도 의원이 각각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2위원장 체제’까지 구축됐다. ‘4장관 2위원장’이라는 상징적 구도는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전례 없는 장면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온 전북의 설움이 컸던 만큼 이번 인선은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 자체에 안도하기보다는 이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단지 고향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기기에 지금 전북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단지 지역 안배 차원의 정치적 배려만은 아니다. 조현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양자·다자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외교 전문가다. 정동영 후보자 역시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정책통이다. 안규백 후보자는 ‘문민 국방’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방산업 육성과 군의 체질 개선에서도 강한 리더십이 기대된다. 특히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국토부장

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는 전주역세권 개발, 새만금 제2도약, SOC 예산 확보 등 난제들을 풀어갈 열의를 쥔 인물이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하려면 국토부의 정책 의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그의 실질적 성과 여부는 향후 지역의 민심 향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라는 핵심 상임위를 맡은 이준석·한병도 의원의 역할은 무겁다. 입법과 예산이 총괄되는 자리인 만큼, 지역 현안이 실질적 입법과 재정으로 이어지도록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예산, 전북형 신산업 육성, 농촌 고령화 대응 등 숙원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결코 그저 얻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도 더러 전북출신 인사들이 중용된 적이 있지만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인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앙부처의 관료주의 장벽, 기득권 예산구조, 수도권 중심정책 등의 현실을 돌파할 정치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다. 출신지를 내세우기보다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에 충실하며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향 사랑이자 공직자의 책무다.

전북출신 장관들과 위원장들에게는 거듭 도민들의 기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오랫동안 소외됐던 전북이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다.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 ‘변방의 서러움’을 ‘국정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제 자리보다 실적이, 상징보다 결과가 말할 때다.

화암사 중창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기록유산, 서각류, 비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가천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경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841-7942 | 무주지국 010-8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중양지국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인주지국 010-8640-6865 |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8-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발백지국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826-6049 |
| 송천지국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까치집 / 이재무

까치집은 볼 때마다 빈집
별 총총한 밤 돌아오는가 보다
허공에 걸린 빈집
심심한 바람이나 툭툭,
저 까치 부부는 맞벌이인가 보다
까치 아이들은 어디서 사나
발길질하고
해 뜨기 전 일 나가
시골집 홀로 된 할머니에 얹혀사나
달빛이나 도둑처럼 들렀다 가고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 ‘과사화’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 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별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길 위의 식사’,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가 작품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BT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취임 3주년 맞이하는 최경식 남원시장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 경쟁력 견인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용성하는 남원, 새 희망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7월 1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최 시장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비전으로 세우고, 지난 3년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온 것은 물론,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각 분야별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공약 이행을 80% 돌파를 비롯해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 설립 등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 및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출한 출산·보육·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등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눈부신 성과로 이끌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과 함께 이룬 남원 민선 8기 3년을 10대 시정성과로 짚어본다.

전국 유일 폐교 서남대 활용... 지역재생 모델 탈바꿈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남원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부지 선정까지 모든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x 역대 최대규모 국·도비 확보

또한 남원시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성장동력을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 시장이 재직자립도 8%대인 남원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사활을 건 것은 대규모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이었다.

이에 실제로 최 시장은 지난 3년간 부처 문턱이 닳도록 광복행보를 펼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예산행보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30 전 북대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604억원)△요천 통합하천(489억원)△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396억원)△전북북한물주배(320억원)△지역활력타운(220억원)△농촌협약(264억원)△곤충산업거점단지(250억원)△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등 총 260건 공모사업에 6,501억원의 예산을 확보,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각종 외부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최고 확보

남원시의 저력은 사실상 외부 평가로 더 입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다 한국매니페스트 3년 연속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달성에 이어 행정안전부 8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대통령 표창 인센티브 15억원 확보 등 총 143건에 선정, 42.4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시 위상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민선 8기 3주년 남원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국내 및 국외 대외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시 위상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남원춘향제다. 춘향제는 민선 8기 들어 93회부터 '빛' 94회 '컬러' 95회 '소리' 등 매해 주제를 달리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한 것은 물론, 특히 94회부터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면서 K-컬처 중심으로 우뚝 서며 화제성 뿐만 아니라 흥행에 대성공, 지난 93회 40만명, 94회 117만명, 95회 145만명으로 대폭 증가, 남원시 위상을 드높이는 기쁨을 토했다. 이에 힘입어 오는 96회에는 '춘향, 맛을 더하다'는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며 100주년을 앞두고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 중에 있다.

◆역사·문화·생태자원 연계 체류형 문화·관광 산업 거점 도약

또한 남원 역사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은 부분과 합파우 아트밸리 추진 등 체류형 문화예술 생태관광거점도시 기반 마련 등 문화관광 광거점을 이룩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인터뷰 최경식 남원시장

“더 용성하는 남원 만드는데 혼신 다하겠다”

최경식 시장은 “지난 3년간 모두가 함께 해주시 덕분에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눈부신 성과로 이룰 수 있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 해 준 1,5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전반기에 남원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세웠던 만큼 그 토대 위에 후반기부터는 작지만 강한 도시, 성장잠재력 높은 도시 남원으로 이끄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남은 1년간 시민과 더욱 협치하면서, 국립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민선 8기 4년 차에는 제 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중심으로 경찰수련원 유치와 경찰특성고 육성을 연계하여 경찰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남원의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국제 드론 레이싱 연맹 설립, 기업 유치 및 2027남원 DFL월드컵 개최 준비에 매진하는 등 더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에 개관할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7월에 개관할 인재학당을 비롯해 청년 만원 주택 및 빈집 정비, 반향 주택 조성 등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 맞춤형 주거정책까지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떠나지 않는 남원, 살고 싶은 강소도시, 더 용성하는 남원의 큰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남원시의 민선 8기 3주년 최대성과는 뭐니뭐니 해도 교육부 「2023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8만 시민과 30만 향우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를 해결한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 본격 추진을 비롯해 △제2의 양지인 선수 등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남원 교도소 본격 추진 등 「국립기관 유치」로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글로벌대학30) 일환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전국 최초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로써 오는 2027년까지 총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 남원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되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세 학과가 개설, 2026년부터는 교육과정도 본격 운영된다. 연간 25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해 1학년엔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하고, 2학년부턴 전공 수업에 들어가며 27년 3월부터는 남원 글로벌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학사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조성’ 사업도 광복할 만한 성과다. 이 사업은 제20대 대선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사업이 본격 계도에 올라 오는 2028년까지 전북자치도 남원에 조성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9월 17일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원 유곡리·두라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남원의 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올 5월에는 가야고분군 홍보관도 개관, 남원 세계유산이 지역의 경제·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만인의 총 의의가 천재교육 등 역사교과서에 등재된 것을 비롯해 '남원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1,150억원)'이 제21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제적 시각 예술거점 2,000억원 규모의 합파우 아트밸리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숲길목공예, 도자전시관, 아트리프트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편 민선 8기 남원시정에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드론·항공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실제로 드론 항공산업에서는 드론훈련자유화 구역 지정과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으로 드론 배송 등 실증사업 추진, 전국 최대규모의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170억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가고 있으며 특히 2027년에는 남원 DFL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DFL(Drone Formula League) : 국토부 상용화 사업으로 개발한 국산 기체 활용 드론 레이싱 대회

바이오산업 육성 부분에서도 다채로운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내 최초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250억원을 확보, 곤충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농생명 바이오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또한 바이오 테스트 센터(190억원)와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190억원) 건립 등으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조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경쟁력 있는 미래농생명 육성

남원시는 지난 3년간 미래 농생명 수도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오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선 8기 들어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60.4ha 규모의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다 지난 6월 5일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최종 지정 고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20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182억원)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938억원 중 838억원을 확보,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500명의 청년 일자리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열대 작물인 백향과를 원푸드로 육성, 미식관광 상품으로 육성한 부분 또한 재배기술 정립 시제품 개발 (24종) 및 지적재산권(특허 등 상표권 출원 18점)을 확보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충출한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남원시 민선 8기 3주년 성과 중 광복할 만한 성과는 무엇보다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된 점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산, 보육, 교육 분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원정출산을 막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터 달빛어린이병원-심야약국 운영 (2025.6.2)△소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2024.5.30)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인재학당 건립△교육특구 선정△어울림도서관 개관 및 SW미래채움센터 개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쇄신하는 등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돌봄행정은 민선 8기 초반부터 시작했던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 경로당 IPTV 구축(494개소) 이외에도 남원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양육과 돌봄 공공성 강화,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복지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남원 조성을 통해 더 강화했다.

◆두툼한 민생경제 실현 등 지방소멸위기 적극 대응

이밖에 두툼한 민생경제 실현 토대를 마련한 부분과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해 지자체의 도시경쟁력을 한껏 빌드업시킨 점도 의미있는 성과다.

남원시는 올해 1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경제적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6월30일 오전 기준)민생안정지원금 225억 4,238만원, 사용률 99.05%를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지리산 하이츠 콘도(10년간 방치), 효산콘도(20년간 방치) 등 민선 8기에 매각,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남원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거 확보한 것 역시 남다른 성과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 획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 시군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총 160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운영 등 총 6개 기금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렇게 남원시는 민선 8기 지난 3년간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정 추진을 통해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